

## 韓廷玉氏의 『神卽社會禮』論에 對한 一考(二)

鄭景玉

### 一 宗教의 社會的 起源論

十八世記 宗教思想은 大體로 보아서 으라빈손크루소式的 個人中心이었다. 막스뮐러와 가튼 사람도 『宗教의 起源과 發展』(一九〇十)에 宗教는 無限과 個我사이의 關係를 가라친 것이라고 하였다. 에드워드테일러의 物活論은 原始人의 非科學的 推想作用에서 宗教의 起源을 찾는다. 原始人은 꿈을 꾸거나 幻影을 볼 때에는 우리에게는 神秘的 靈的 實體가 있어서 언제나 肉體를 떠나서 뚝뚝 썰 돌아다닐 수 있으며, 사람이 죽은 후라도 魂靈만은 살아 있어서 人間의 運命을 支配한다고 생각 하였고, 動物이나 植物이나 어찌한 物體까지라도 사람을 도읍거나 害하는 精靈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이것이 곧 宗教의 始作이라고 한다. 그러나 近代學者들 中에 만흔 專門家들의 主張에 依하면 原始人들은 이와 가티 꿈을 理論的으로 思索한다는 것보다 오히려 고기 잡고 산양하며 部族의 安寧을 위하여서 活動하는 것이 더 □한일이 엿갠다는 理由로 宗教의 起源을 部族的 關係에 있다고 하게 되었다. 여기에 宗教의 社會的 起源論의 時代的 價値를 보게 된 것이다.

여기서 더 긴말을 쓰집어 낼것이 업시 韓先生의 宗教 起源論을 말하여 보자. 氏의 宗教 起源論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다.

1 첫째는 氏의 主張에 依하면 사람이 社會生活을하시前 오래 동안 孤獨한 個人生活을 하여 왔으며 이 때에는 自然環境에 對하여서 驚異와 恐怖를 느꼈으나 宗教란것은 업섯다(第 四回一段과 二段)고 한다.

2 둘째로 사람이 社會生活을 하게 되자 道德觀念이 생기고 달하서 이 道德律을 絕對無上의 命令을 가지고 지지□□하는 社會 그것을 神으로 崇拜되게 되었다.(第五回一段)

마지막으로 『그들 萬人은 다시 모든 儀式을 設定奉行하여 人間의 敬拜라는情을 表하게 하였다(第 五回二段二十-三十行)고 한다.

첫째로 筆者는 사람이 社會生活을 하기전 오래 동안 孤獨한 個人生活을

하엿다는 것과 이 새에는 自然環境에 驚異感은 가지고 잇섯스나 宗教는 업섯다는 것이 事實인가를 疑心한다. 氏의 論文은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장 까지 個人과 社會或은 『個人主義』와 『社會主義』를 갈로 썩이듯이 區分하여야 가지고, 이 두 가지를 對立시키어 個我란 것을 輕視하며 『個人主義』를 처너 머트리는 것을 일삼엿다. 그러나 오늘날 社會學者나 心理學者의 大部分이 個人을 썩난 社會나 社會를 썩난 個我를 想像할 수 업다고 가리 친다. 사람이 라면 □서 社會關係로 말미암아 形成된 人格內容을 聯想한다. 言語와 藝術이 잇고, 風俗과 習慣이서고 知識과 理想이 싸히고 制度와 規例가 定하여야지는 것이 모다 人格內容의 錯雜한 交際이다. 그리고 社會意識이라든가 社會生活이라든가 하는 것은 個我를 썩난 慣例인 것보다도 個性의 特殊性과 獨創力을 가진 人格안에 보이는 社會的 關係에 對한 意識內容을 말함이다.